

남의 말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주장을 세워야

25면에서 계속

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조금 알 것 같은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체험을 하고 싶는데 가르쳐 주십시오.

☞ 우리 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대 정법은 뭐냐 하면 '실행입니다. 실천과 실행.' 모두 실행을 해 보세요. 내 가정에 어떠한 거, 내 자식을 위한 다든가 내 부모를 위한 다든가 내 몸을 생각한다면 뭐 어디 아프다든가 일이 안된다든가 무슨 재판이 걸렸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거기에 맡겨 놓고 한번 실행을 해 보고 실천을 해 보는 데에 아주 큰 목적이 있습니다. 실천 없이 어떻게 자기가 체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기한테 오는 문제를 실행해 보시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계를 크게 합니다. 판 사람들은 일요일날 가게를 쏘아 하나 일요일날 법회를 못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한두 번 절에 왔다 갔습니다. 실행할 때, 왔다 가더니 '여보게! 한두 시간 그거 문 닫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 우리 들이 문 닫아 놓고 가세.' 그래서 인제는 빠지지 않고 법회날에 온 겁니다. 그렇게 문 닫고 실행 들고 가는 날은 문 닫지 않았을 때보다 곱을 더 판다고 합니다. 두시간 비웠던 곱을 판다 이겁니다. 이렇게 실천과 실행을 하고 체험을 하고 돌아가는 데는 그냥 뭐 갑탄합니다.

법당에 와서만 아니라 변소간에 앉아서라도, 또는 집의 안방에서라도, 일을 하면서라도, 나가서 작업을 하면서라도 '하하! 지금 네 영원한 이 한마음의 주인공이 아니었더라면' 즉 말하자면 이 속의 생명들이 아니면 내가 지금 이 곱때기가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그러니 한마음의 주인공 그 자체, 그게 한마음의 일심이거든요. 그 전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음의 일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일을 하고 다니겠나. 감사하구나. 오늘도 우리 식구 이끌어 주고 이러는 거는 한마음의 주인공밖에 없구나.' 이렇게 믿고 다니시라 이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 믿으니까, 허공을 믿으니까, 형상을 믿으니까, 고깃덩어리를 믿으니까? 자기 전생의 그 영원한 자기의 근본 주인공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도 자기를 끌고 다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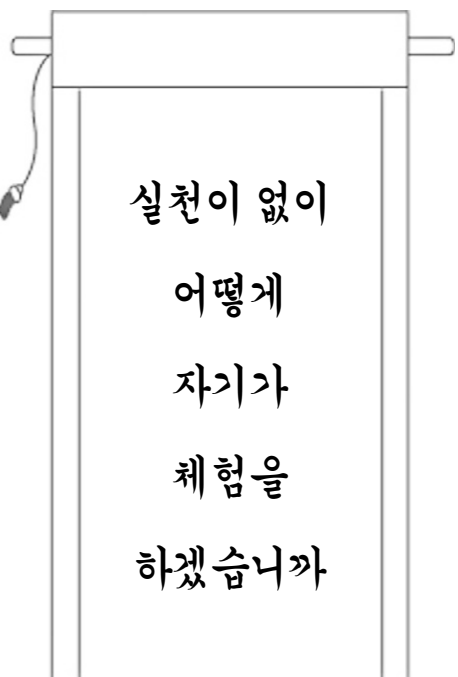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 생활에서 지금 돌아가는 현상만 보고 곱달리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 보시면서 나간다면은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견 안 돼.' 안되긴 뭘 안될까? 아니, 자기가 사랑으로 안된다면 건 말이 안됩니다. '허허, 이견 모든 게 전생에 내가 살던 내 영혼의 근본이 한마음이 돼서 전부 나가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무찌르고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뭐, 그거

야 주먹 불끈 쥐고 한번 칼을 뺏으면 드는 거지, 무슨 뭐가 어쩌니 뭐가 어쩌서 안되느냐 이라고 야단입니까? 그러니 주인공 자리를 확실히 믿고 놓는 데에 실천부터 먼저 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체험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모든 게 마음 먹기 나름이래는데...

☞ 우리가 살다 보면 하는 일이 안되거나 아플 때는 힘이 쭉 빠지면서 용기가 없어집니다. 마음이 뜻대로 잘 안됩니다. 모든 게 마음먹기 나름이래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마음이 느긋하면 좀 천천히 걸어가게 돼 있고, 또 게으르면 그냥 쫓겨



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이 게으르지 않은 사람은 아파도 그냥 '일어나야지. 할 건 해야지.' 하고 마음이 그렇게 돌아갈 때 바로 일어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마음이 차차분분하게 깔려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서 무슨 병이 있다 소리를 들으면 '난 이제 죽는다.'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죽으니까 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다 죽는 거예요. '인젠 죽었다.' 하는 거요. 이 몸속에서 작용을 해 줘야 할 생명들이 '나는 죽었다.' 하니 그게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위 공장의 책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관리인 또는 간장 관리인, 소장 관리인, 대장 관리인, 공장 관리인, 방광 관리인, 척추 관리인, 이 모두의 관리인들이 다 폭삭 그냥 죽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의욕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이, 이견 첫째 앞에 선 선두자가, 마음이 '야, 이견 다 죽었구나. 인젠 죽었다.' 이러면 그 밑으로 풀줄 내려가면서 다 죽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고

생대로 하고 죽는 거요. 그러니까 살리고 죽이는 거는 그 주장자에 매여 있으니 그렇게 남이 어려운 대로 휩쓸리고 저러는 대로 휩쓸리지 말고 내 주장을 세워라 이겁니다. 약하고 선한 거를 다 놔야 된다 이런 원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에 정히 급하고 그럴 때, 이 국난에 처해 있을 때도 여러분이 미리미리 이런 걸 알면 '회사가 어떠한 지경에 놓여 있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할 때에 벌써 미리미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겠죠. 다 겪어지고 다 무너진 연에 이걸 일으켜 세우려니까 힘들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부부기간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없다면 싸울 게 뭐 있겠습니까? 부부기간에 만난다 하는 것도 자식의 인연을 짓는 다 하는 것도 다 끼리끼리 만나는 인연입니다. 금은 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인연이 되고, 시장에 가도 사과는 사과대로 인연이 되고, 배는 배대로 인연이 되고 이렇게 인연이 된 사람들과 리 한 가지가 됐다면 그 가정에서 누구를 맞으겠습니까?

그러니 모두 내 뜻으로, 각자 내 뜻으로 돌리고 돌 아니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 해 줄 수 있고 부드러운 행동 해 줄 수 있다면, 그 집은 아주 화합이 되고 재산이 늘어가고 안되는 일이 없이 그렇게 잘 걸어가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을 쫓게 쓰는지 말입니다. 꿈을 꾸고도요, 그것도 맘대로 못해요. 아 그거, 그냥 주인공에다 탁 놓고 '그것도 거기에서 화해서 보이는 거니까 거기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하고 탁 놓으면 될 거를 '이게 꿈이 나쁘니 무슨 일이 생길까, 어쩔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일이 생기고 마는 거요. 그게 팔자 운명이에요. 마음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 불지를 앓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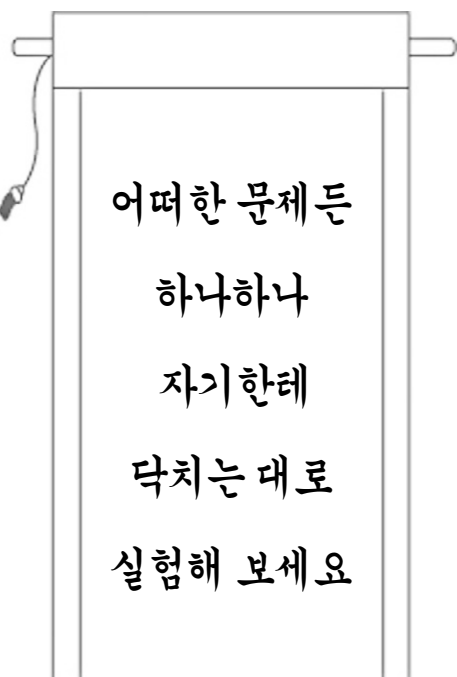
이 모두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그렇게 부처님의 그 뜻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방편의 길! 이것이 바로 씨를 어떻게 하고, 즉 말하자면 '귀신방귀씨를 얻어서 귀신방귀똥을 먹어서 잘 길러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귀신방귀씨라니 그게 뭐냐? 귀신방귀똥이라니 뭐냐?' 이러죠. 체가 없으니 그것이 다 귀신방귀똥이지 뭐냐? 체가 없는 것이 체가 없는 것을 먹어 키워야 그게 정상적으로 키워지지 체가 있는 것이 체가 없는 거를 키워려면 키워집니까, 그게?

우리가 한마음으로서 점프를 해서 뛰는 것이 허공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듯이 이 마음도 그렇게 점프하듯 그냥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가 터지고 불교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돼야죠.

그렇게 아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모든 일대사의 인연을 다 짓는 겁니다. 힘이 없어 하는 도리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근본 마음자리에서 무조건 맡기고 물러서지 말고 패기 있게 그냥 그렇게 나가시면서 점프하시면요, 그대로 그렇게 될 수 있고 인생을 편안하고 보람있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건.

들끓는 이 마음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 번뇌를 끊고 오로지 내 마음자리에 몰입하고 싶는데 들끓는 이 마음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스님께서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따끔하게 한마디 일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처음에는 모든 문제를 전부 하나로 몰아야 합니다. 하나로 놔 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내공에다가 그냥 놔 버려주세요. 내공에다가 놔 버릴 때 하나로 되는 겁니다. 내공이란 이름 없는 내공! 이름 없는 게 공 아닙니까? 공에다 다 놔서 그 공마저도 없애려는 것이 나를 때끼지 다 놔 버려라 이겁니다. 그것은 끊는 게 아니라 돌리는 겁니다.

끊어 버리면 부처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끊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쇠가 많은데 말입니다. 못 쓰는 무쇠를 울광로에다가 넣어야 그제 한데 어우러져 녹아서 다시 생선이 되어 나 오지, 그거를 못 쓴다고 다 버려나오? 버리는 거 봤어요? 또 금이라 할지라도, 하다가 잘못되고 끊어지고 그랬다고 버리는 거 봤어요? 금방에 가서 다시 생산하듯, 그러니까 당신한테서 벌어진 건 당신이 해결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모든 걸 끊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바로 하나로만 생각하세요. 들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내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오,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은 이름이지마는 지팡이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장남이나 다리가 아픈 사람은 지팡이를 짚어야죠? 나으면 지팡이는 저절로 놔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공에다가 믿고 다 놔 버려주세요. 다 놔 버릴 때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들고 내고 들고 내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작용을 하는 거지 누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한 생각에 들 수도 있는 가 하면 한 생각에 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한 생각에 입을 산더미같이 지을 수도 있고 한 생각에 산더미 같은 걸 없앨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한 생각에 달린 건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십니까?

주변에서 개종하길 바랍니다

☞ 반갑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기독교인이 태반이라 종교를 불교라고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변에서는 개종하기를 은근히 바라는데 참 난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헛갈립니다.

☞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어느 기독교 회사를 다니는 신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기독교로 돌리지 않으면 승진도 안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기독교엘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장소는 돌이 아니다."라고요. 난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이 자리가 그 자리니까 아무 자리에 앉았어도 네가 거기 앉았으면 바로 네 부처는 거기 계신 거."라고 했죠.

그러니 개종을 한다는 생각도 말고 또는 나는 불교인이라는 생각도 말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지도 말고 한마디로 그분들더러 그러라고 했죠. "나는 이 장소가 그 장소고 그 장소가 이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강당에 가 앉아 있어도 거기 내 자리고 도량이고 여기에 앉아 있어도 도량입니까 그 저 아, 나오려면 나가야죠, 직원인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그 애길 쪽 하나씩 "여보게! 자네 같은 사람은 참 별 사람일세. 그러니 자네 같은 사람을 내가 끌고 안 끌고 그것은 다 소용없는 짓인가 봐!" 그러곤 승진을 시키더라고요. 참으로 우리가 그 마음이 너그러우면 그쪽의 마음도 너그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개종을 하고 개종을 안 하고 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이 불교가 어느 한군데 국한된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상점의 상표처럼 생각하고 이견 내 가게 네 가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선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선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선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작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구입문의 : 현대불교 헌불샵 02)2004-8215~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 국민 343601-04-046766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